

과학 문화

1 지난 금요일 자원 봉사로 일본어 통역을 해주신 아주머니 덕분에 무사히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3-4주 후에 등록증이 교부된다고 한다. 외국 여행을 위해선 따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멀티플’ 허가를 한번만 받으면 된다고 한다. 다음 주면 이런 일들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자원 봉사자 아주머니는 26년 전 캘리포니아에 1년간 계셨다고 한다. 남편이 스탠포드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학부생이었는데 졸업 전에 결혼을 하셨고 당시에 이미 아들도 있었다. 그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따님은 수학을 전공하는 와세다의 대학원생으로 교수가 되고 싶는데 경쟁이 심하다고 걱정을 하셨다.

아주머니는 근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계신데, 통역 자원 봉사는 처음이라고 하셨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하루 전날 카시와 시청에 가서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하고 미리 연습을 하셨다며 함박웃음을 웃으셨다. 친절함 덕분에 내가 일본어를 못한다는 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내가 속한 연구소의 히토시 무라야마 소장이 카시와 도서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하셨을 때 참석하셨다고 한다. 무라야마 소장이 참 말

씀을 잘해주셨는데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어려운 공부 잘 하시라고 나를 격려해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번 오픈 캠퍼스 때 동경대 캠퍼스에 가셨는데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해보셨단다. 싸고 맛이 있더라며 나더러 좋겠다고도 하셨다.

이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는 영어를 배우고, 연구소의 오픈 캠퍼스와 시립 도서관의 물리학 강연에 참석하셨고, 새 연구소의 외국인 연구자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해주신 것이다. 노벨 과학상 네 개가 쏟아져 나온 나라의 평범한 저력이라고 느꼈다면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연구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유능한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계신 듯 보였고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깊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2 출국하기 전날 아내와 함께 학교를 들른 김에 아내의 사촌오빠인 C 교수님과 점심을 하며 작별 인사를 드렸었다. 이런 저런 가족들 안부 소식 뒤엔 모 신문에 칼럼을 신게 되신 뒷이야기도 들었고, 전에 출간하신 책에 얽힌 이야기와 곧 나올 새 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접할 수 있었다. 역시 물리를 하시는 분이려 공감할 수 있는 공통 주제가 많아서인지 점심시간이 짧게 느껴졌고, 진지한 주제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는 돈 때문이 아니고 자리 잡지 못한 ‘과학 문화’ 때문이라는 것.

과학 문화가 뭘까? 아마 여러 수준의 다양한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과학 문화는 이런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도 시립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문 물리학자의 강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

3 과학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는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사회에서 황우석과 같은 거짓 과학이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폄하하는 사람들이 과학 정책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문가가 자기의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과학 문화도 점차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는다. 80년대 초 서울대 물리학과에 서조차 1년에 한 편이 나올까 말까하던 미국물리학회지(Physical Review)에 이제는 수백 편 이상 한국인 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이공계 푸대접 속에서도 여전히 똑똑한 학생들 일부는 과학을 선택하고 있다. LHC와 쿼크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이나마 언론에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도 목격한다.

노벨상은 노벨상을 타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노벨상을 탈 만큼 가치로운 연구에 주어지는 상이며, 자리 잡은 과학 문화의 자연스런 부산물이라 믿는다. 부디 똑똑한 학생이 과학을 포기하지 않고, 과학자가 다른 걱정 없이 정말로 가치로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가 어서 자리 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

저자약력

박성찬 박사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PhD(2002)로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KIAS) 연구원(2002-2005),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원 및 강사(2005-2006),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BK21 연구원을 거쳐 현재 동경대학교 数物連携宇宙研究機構(IPMU) 특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seongchan.park@gmail.com)